

2016년
교육정책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중3, 고3 학생의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중3, 고3 학생의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졸업까지 제대로 -

연구진		
책임 연구자	이혜경	밀양중학교
공동 연구자	주은경	밀양중학교
	박종화	밀양중학교
	장인애	밀양중학교
	최명종	밀양중학교
	강민정	밀양중학교
	이정숙	밀양중학교
	이병수	밀양중학교
	손경순	밀양교육지원청

- 목 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II. 본론

- 1. 연구의 배경 4
- 2. 연구의 결과
 - 가. 연구과제 1 9
 - 나. 연구과제 2 14
 - 다. 연구과제 3 18

III. 결론 및 제언 42

* 참고자료 44

* 부록 i

<중3, 고3 학생의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학교 3학년은 11월 초에 실시되는 2차 고사로 사실상 교육과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어서 내신석차 산출이 완료되면 졸업식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3월부터 10여 개월 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함으로써 쌓아왔던 담임 및 교과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존중과 신뢰가 깨짐으로써 더욱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어려워지고 생활지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교육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지고 학교는 배움의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육공동체 역시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4년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학년도 학사 운영 다양화 .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 시점은 확산되는 자유학기제와 꿈 . 끼 탐색 및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밝혔다. 그래서 관행적인 학사 운영을 벗어나 학교급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수업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사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의 추진으로 그동안 단순히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제기를 넘어 공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던 취약시기의 비효율적인 교과 수업과 그로 인한 교육공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에서 교육부는 4가지 학사 운영 모형을 제시했다. 월별 단기방학형, 계절별 방학형, 2월 등교 최소화형, 이상의 3가지를 혼합한 모형이다. 단위 학교별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육공동체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의 실정과 지역이 처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수립한 학사일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학년말의 교육과정을 창의적체험활동 중심, 즉 진로 탐색이나 자치 및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방학이나 체험기간의 설정 등 학사 일정으로 생길 수도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방학 시기 및 기간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형제자매가 서로 학사일정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군 단위로 범위를 넓혀서 학사 일정 등을 학년 초에 협의하여 인근학교와 연계 . 실시하는 방안 모색을 권장하였다. 앞으로 학부모와 교원의 일정 및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 꿈 . 끼 탐색 주간 UCC 공모전, 자료집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해 교육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가지 모형을 기본틀 삼아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2월 학사일정 최소화 모형을 선택하여 1월 또는 그보다 더 앞당긴 12월 졸업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12월 또는 1월 졸업식을 환영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학년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졸업식을 앞당기고 2월에 등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본 연구회는 경남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2015학년도에는 1월 초 졸업식 실시로 2월 학사운영을 하지 않았고, 2016학년도 12월 졸업식 실시로 1,2월 학사운영을 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밀양중학교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확대하고 문제점은 보완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회의 목적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교육과정을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이번 연구에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과제 1.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이 만족하는가?
연구과제 2.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과제 3.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나. 연구의 방법

- 1) 교육부 보도자료와 경상남도교육청 자료 및 지역별 뉴스 기사를 찾아 졸업식 시기를 조사하고, 밀양중학교 2015학년도 1월 졸업식 학사운영 결과와 2016학년도 12월 졸업식 학사운영 계획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 . 분석하였다.
- 2) 교육부 보도자료와 경상남도교육청 자료 및 밀양중학교 학사운영 설문 조사로 학년말 및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 . 분석하였다.
- 3)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학년말 및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과제 1,2를 바탕으로 연구과제3 즉 수학능력평가 및 학년말 평가 이후의 수업 부실화와 교육공백 발생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본론

1. 연구의 배경

가. 1월 졸업식의 확산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밝힌 문제점은 학년말 특히 2월의 수업 부실화와 비효율성으로 이 기간에 교육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5학년도 학사운영 다양화 . 내실화 추진계획에서 수능 등 각종 평가 이후 특히 2월의 형식적인 수업 관행으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의 2016학년도 학사운영 다양화 . 내실화 운영계획에서는 고3 및 중3 기말고사 이후, 교육과정 운영 애로 및 학생 관리 부실을 문제점으로 적시하고 있다.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좀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월 등교 해봤자 놀기만 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chosun.com) 2월 학기가 ‘시간 때우기식’으로 운영되고, 졸업을 앞둔 3학년들은 엮드려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일이 빈번하며, 이런 교육과정 운영은 ‘파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2015학년도에 경기도 96개교, 서울 31개교, 강원 31개교 대구 9개교 등 전국적으로 170여개교가 1월 이전 졸업식 학사일정을 운영하였다. 2015년 중등학교는 5,548개교로 3% 정도가 해당 학년도의 12월 말 또는 이듬해 1월 안에 학사일정을 마친 셈이다. 2016학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2015학년도에 밀양지역 3개교가 1월 졸업식 학사일정을 선택했다. 2016학년도에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식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중학교 11개교로 4.07%, 고등학교 10개교로 5.24%에 해당한다. 12월 졸업식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이다. 밀양지역의 경우에는 2016학년도에 2개교가 더 1월 졸업식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밀양시내 중학교 6개교 중 5개교가 2016학년도에 12월 말 또는 이듬해 1월 초에 졸업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경남 지역의 1월 또는 12월말 졸업 학사일정 운영 중학교 중 55%에 해당한다.

본 연구회 교사들이 몸담고 있는 밀양중학교의 경우에도, 2014학년도 이전의 2월 10일 전후 졸업식 학사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교육부 발표 자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과별로 학생 체험 활동, 영상을 활용한 문제 제기 및 토의와 토론, 모둠별 작품 만들기, 독서 활동 등의 수업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평가가 끝난 시점이라 학생들은 수업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거나 잡담을 하면서 제대로 수업 활동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교사가 애써 준비한 진로나 교과 관련 체험 중심의 수업을 비웃으면서 개인적으로 상급학교 또는 학년에서 다루는 수학이나 영어 선행학습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한 지도가 불가피하게 된다. 하지만 수업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해도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사를 무시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로 자신의 생각, 즉 성적 산출이 끝났으므로 학교 공부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수업에 따른 지도 과정에서 교과 교사와 학생의 의견 충돌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음으로써 3월부터 쌓아왔던 사제간의 존중과 신뢰가 깨지고, 교육의 의미와 가치마저 희미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원하는 영화 시청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루 종일 영화만 보니까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학생의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 시기의 교과 수업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학교를 벗어나는 무단결석일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2013학년도 무단결석일수는 3학년이 105일, 2학년은 18일이었다.

<표 1-1> 2013학년도 학년말 무단결석 일수

월	학년(학생수)	1(237명)	2(236명)	3(230명)	계
	2013.12.2.~27(19일간)		3	14	50
2014.2.3.~7(5일간)		2	4	55	61
합계		5	18	105	128

경상남도교육청이 학년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고입선발고사를 실시한 2014학년도에도 3학년은 무단결석일수가 64일이었고, 2학년이 21일이었다. 2013학년도보다 3학년의 경우 41일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무단결석일수가 많았다.

<표 1-2> 2014학년도 학년말 무단결석 일수

월	학년	1(232명)	2(238명)	3(236명)	계
	2014.12.1.~30(21일간)		2	9	37
2015.2.1.~10(7일간)		0	12	27	39
합계		2	21	64	87

또한 무단지각과 조퇴 및 결과는 3학년의 경우 2013학년도에는 397회, 2014학년도에는 187회였다. 고입선발고사를 실시함으로써 무단결석 및 결과횟수가 줄어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고입선발고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1학기가 3월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이며, 2학기는 여름방학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어쨌든 졸업식은 2월에 해야 하니까 2월까지의 반드시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과정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2013학년도 학년말 무단지각 . 조퇴 . 결과 횟수

월	학년	1	2	3	계
	2013.12.		4	9	273
2014.2.		2	2	124	128
합계		6	11	397	414

<표 1-4> 2014학년도 학년말 무단지각 . 조퇴 . 결과 횟수

월	학년	1	2	3	계
	2014.12.		0	16	131
2015.2.		0	3	56	59
합계		0	19	187	206

나. 밀양중학교 2015학년도 학사 일정 조정 과정

2014학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한 2월 중순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교감(손경순 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의 학년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학생 지도상의 문제제기로 전체 교직원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교감은 졸업식을 앞당기는 학사 일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논의 결과 전학년도보다 한달 앞당긴 1월 7일에 졸업식을 하는 학사일정안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음악과 미술 교과에서 인근 학교와 견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해당 교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장협의회에서 학사일정 계획을 공유 . 협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견임 교사 문제가 걸려 있는 학교와 학교 자체의 특성상 1월 졸업식 학사일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1개 학교가 동참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밀양지역에서 3개 공립중학교가 1월 졸업식 학사일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 2015학년도 1월 졸업식 학사일정의 성과

2015학년도 학년말, 즉 12월과 1월에 교육과정상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학년말 평가 이전보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활동 중심의 교과 수업을 계획하여 실시함으로써 모든 교과수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었다. 시간을 단축하거나 영화를 몇 시간씩 계속 보거나 자율학습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학생과 교사가 서로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신뢰와 애정이 이어졌다. 물론 20 . 30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월 졸업식 학사일정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긍정적인 효과의 단적인 예로 무단결석일수와 무단지각 . 조퇴 . 결과 횡수를 보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무단결석일수 비율(무단결석일수/출석할총일수*100)은 0.08%였다. 이것은 2014학년도의 0.97%에 비해서는 12배가, 2013학년도의 0.97%에 비해서는 79배가 감소한 것이다. 2015학년도의 19일 중 12일은 한 학생의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단결석일수는 7일에 불과하다. 비율은 겨우 0.0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학년말에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학년말 미인정유학으로 인해 무단결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있어 특별히 이것으로 인한 결석일수도 따로 조사를 해보았다. 결과는 이 시기에 미인정유학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다른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 2015학년도 무단결석일수

월	학년(학생수)	1(191명)	2(232명)	3(239명)	계
	2015.12.1.~30(21일간)		0	9	4
2016.1.4.~8(5일간)		0	5	1	6
합계		0	*14	5	19

* 미인정유학 12일 포함

<표 1-6> 2015학년도 학년말 무단지각 . 조퇴 . 결과 횟수

월	학년	1	2	3	계
	2015.12.		1	0	30
2016.1.		0	0	22	22
합계		1	0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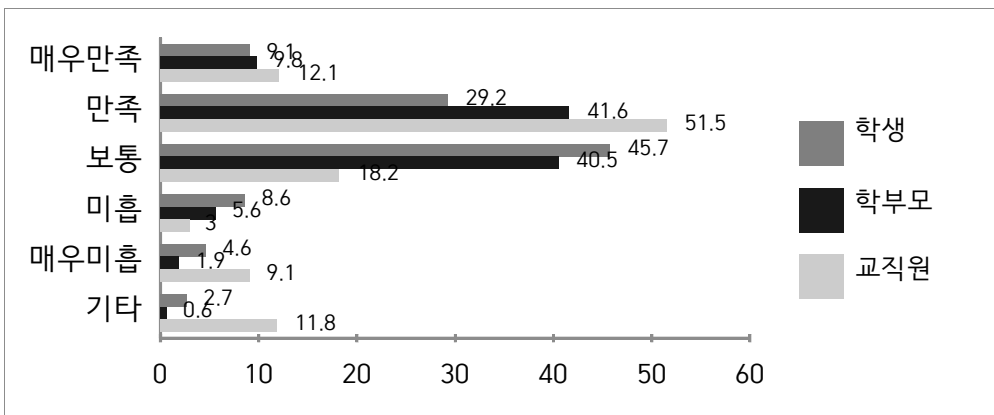
라. 2016학년도 밀양중학교 12월 말 졸업 학사 일정 조정 과정

2015학년도 1월 졸업식 학사일정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2016학년도에는 12월 30일 졸업식 학사일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상급학교 준비, 가족 체험 계획 등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것이 학부모의 요청 사항이었다. 12월 졸업과 종업으로 학교 또는 학년을 마무리하고 상급 학교 또는 학년에 대한 준비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12월 졸업식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달이라는 긴 겨울방학 기간에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을 담임교사가 수시로 살피고 지도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학사일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2016.9.30.) 수정 없이 학사일정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2. 연구의 결과

가. 연구과제1.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이 만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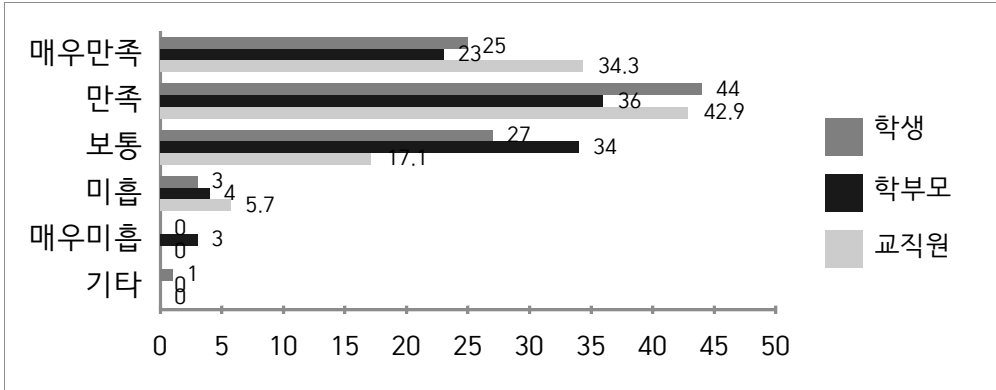
밀양중학교의 경우 2015학년도 1월 졸업 학사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기타와 보통 응답자를 제외한 만족도 비율은 학생 70.57%, 학부모 87.25%였으며 교직원은 87.50%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졸업 시기에 대한 항목에 이어서 2016학년도의 12월말 졸업 시기에 대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설문이 있어서 두 항목을 비교해서 응답한 결과이기도 해서 실제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2016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와 같이 실시하여 단순히 졸업 및 종업 시기만 염두에 둔 응답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졸업 및 종업 학사일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통제된 설문을 실시한 밀양여자중학교과 미리별중학교 만족도 응답율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기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졸업 및 종업 시기에 집중할 수 있게 상황을 통제한다면 만족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도표 1-1] 2015학년도 1월 졸업 학사일정 만족도(밀양중학교)
 설문 참여 : 학생 593명 중 582명, 학부모 519명, 교직원 46명 중 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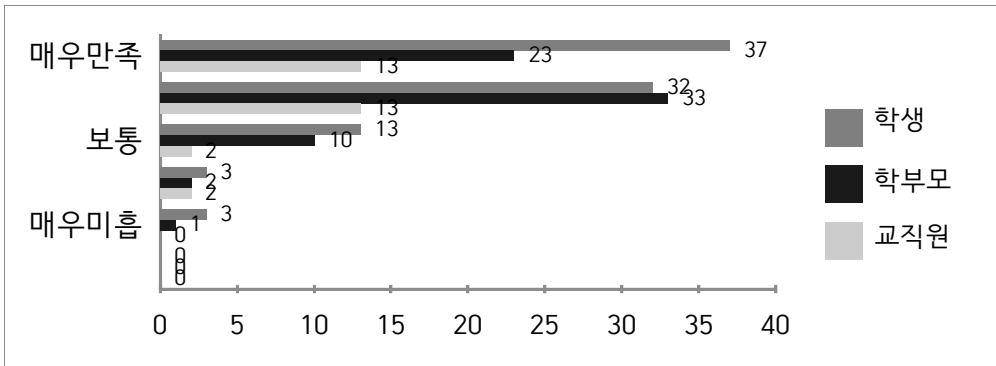
밀양여자중학교의 경우 2015학년도 1월 졸업 학사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기타와 보통 응답자를 제외한 만족도 비율은 학생 95.83%, 학부모 89.39%였으며 교직원은 93.10%로 나타났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설문 상황이 통제되지 않은 밀양중학교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설문지 100장을 의뢰했는데, 회수율이 100%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밀양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의 2월초 졸업 및 종업과 2015학년도의 1월초 졸업 및 종업을 모두 경험한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밀양여자중학교의 응답율이 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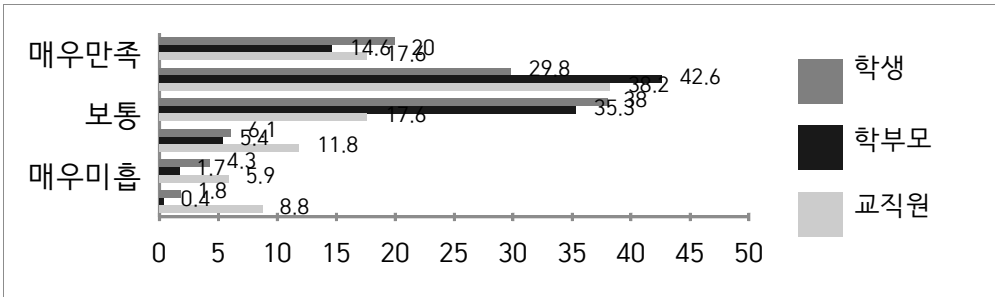
[도표 1-2] 2015학년도 1월 졸업 학사일정 만족도(밀양여자중학교)
 설문 참여 : 3학년 학생 100명, 학부모 100명, 교직원 36명

미리벌중학교의 경우 2015학년도 1월 졸업 학사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기타와 보통 응답자를 제외한 만족도 비율은 학생 92.00%, 학부모 94.92%였으며 교직원은 92.86%로 나타났다. 밀양중학교와 밀양여자중학교에 비해 학부모 만족도가 2~4% 높은 것은 '기숙형 공립학교'라는 특수성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도표 1-3] 2015학년도 1월 졸업 학사일정 만족도(미리벌중학교)
 설문 참여 : 학생 100명, 학부모 81명, 교직원 46명 중 31명

밀양여자중학교와 미리벌중학교는 2016학년도에도 201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1월 초에 졸업 및 종업을 하는 학사일정을 선택했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바대로 밀양중학교는 2016학년도에는 12월말 졸업 및 종업 학사일정을 계획했다. 그래서 밀양중학교의 경우에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추가했다. 이 설문에서는 기타와 보통 응답자를 제외한 만족도 비율이 학생 80.40%, 학부모 88.92%였으며 교직원은 76.00%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 교직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두 번째 연구 과제인 12월말 또는 1월초 졸업 및 종업 학사일정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표 2-1] 2016학년도 12월 졸업 학사일정 만족도(밀양중학교)
설문 참여 : 학생 593명 중 560명, 학부모 519명, 교직원 46명 중 34명

한편 1월 및 12월 말 졸업 학사일정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연속되는 긴 겨울방학에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학생 및 학부모 모두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에서 학년말 수업 부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는 학사일정을 선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는 연속되는 2개월의 겨울방학 기간에 다양한 학습 또는 체험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가치관에 따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1월 이전 졸업 만족 이유(밀양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이유	그룹(명)		
	학생	학부모	계
학년말 수업 부실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50	69	119
긴 겨울방학에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실행 가능해서	183	187	370
다음 학년 또는 상급학교 준비 기간이 길어서	58	60	118
기타	3	2	5
합계	233	256	489

밀양여자중학교와 미리별중학교는 밀양중학교보다 약 1달 뒤에 설문을 진행했다. 앞서 실시한 밀양중학교에서 나온 기타 의견을 보충하여 2개 학교 설문에서는 만족하는 이유에 ‘휴식’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따라서 밀양여자중학교와 미리별중학교는 기타를 제외하고 4개 문항의 설문에 응답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밀양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설문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졸업 학사일정 자체에 대한 응답을 한 결과, 밀양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울방학의 다양한 계획 실행’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만큼 충분한 휴식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휴식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28명으로 적은 편이 아니었다.

<표 2-2> 1월 이전 졸업 만족 이유(밀양여자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이유	그룹(명)		
	학생	학부모	계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할 수 있어서	36	28	64
학년말 수업 부실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3	3	6
긴 겨울방학에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실행 가능해서	41	41	82
다음 학년 또는 상급학교 준비 기간이 길어서	17	23	40
기타	3	4	7
합계	100	99	199

미리별중학교의 경우에는 밀양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전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1학년은 ‘졸업 및 종업 학사일정’을 ‘졸업식’으로 이해한 경우도 있어서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율이 낮았다. 그래서인지 ‘충분한 휴식’이 학생과 학부모 양측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은 두 번째로 높은 ‘다양한 계획 실행’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학부모도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서 기숙형 공립학교의 특성상, 연속되는 긴 겨울방학 동안에 보호자 곁에서 충분한 휴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3> 1월 이전 졸업 만족 이유(미리별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이유	그룹(명)		
	학생	학부모	계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할 수 있어서	45	24	69
학년말 수업 부실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3	6	9
긴 겨울방학에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실행 가능해서	24	16	40
다음 학년 또는 상급학교 준비 기간이 길어서	15	19	34
기타	2	0	2
합계	89	65	154

교직원의 경우에는 각 학교의 설문 문항을 약간 다르게 구성하여 실시했다. 밀양중학교와 밀양여자중학교는 2월 등교 일정을 줄이는 목적인 ‘학년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효과적’이라는 문항에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미리별중학교는 ‘기숙형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기숙사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이라는 응답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겨울방학이 연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교과 관련이나 자기 연찬을 위한 각종 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교직원 중 교원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학생들과 더불어 학년말에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계발과 교과 연구를 위한 연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표 2-4> 1월 이전 졸업 만족 이유(교직원)

이유	그룹(명)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별중
학년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효과적	9	16	8
학년말 생활지도에 효과적	5	5	0
방학 활용으로 교원의 연수에 효과적	6	11	8
기숙사 운영에 효율적	X	X	11
학생들과 좋은 관계 유지	X	1	X
기타	1	0	0
합계(명)	21	33	27

나. 연구과제2.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설문 결과 밀양중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만족하는 학사일정은 12월에 졸업 및 종업식을 한 후에 이듬해 1~2월을 방학기간으로 하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2016학년도 12월 졸업 학사일정을 다 끝낸 것은 아니지만, 최근 3년간 2월 졸업과 1월 졸업 학사일정을 경험했으며, 현재 12월 졸업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밀양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볼 때, 2월 졸업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월 졸업 학사일정을 세 그룹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한 교직원의 경우에도 1월 졸업과 12월 졸업을 합치면 79.4%로 역시 2월 졸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1월 초 또는 12월 졸업 학사일정을 운영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12월 말 또는 1월 초 졸업을 선택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간에 등교일 없이 연속되는 긴 겨울방학이 부담스럽다는 점은 학생과 학부모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체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무너질까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는 생활습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인 체험 여건 부족도 염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2학기 개학 시기가 8월 중순으로 더위에 지치고 힘들 수도 있다, 겨울방학이 길어서 개학 후 적응하기 힘들다, 학생부 마감일 12월에 해야 하므로 봉사활동시수 등을 채울 기간이 부족하다, 소속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 집에 혼자 있는 기간이 길어서 불안하다 등이 있었다.

<표 3-1> 걱정스러운 이유(밀양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이유	그룹(명)		
	학생	학부모	계
긴 겨울방학의 학습 공백	13	12	25
긴 겨울방학의 생활태도 문제	19	30	49
다양한 체험 여건이 되지 않아서	29	21	50
기타	17	8	25
합계	32	42	74

밀양여자중학교와 미리별중학교의 경우에는 설문을 약간 세분해서 조사했다. 그결과 두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지고 나태해질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학습 습관이 무너져 새학기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앞당겨진 졸업 및 종업 일정으로 수업 진도가 빠르다, 정기 고사가 앞당겨진다, 오랫동안 친구를 보지 못해 아쉽다 등이 있었다. 학부모 중에는 방학 기간이 길어 학생의 소속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긴 겨울방학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 내용과는 다른 관점으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나왔는데 '다양한 체험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응답율이 더 높았다. 긴 겨울방학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형제자매가 졸업 및 종업 시기가 다른 점은 불편하다는 기타 의견을 낸 응답자도 있었다.

<표 3-2> 걱정스러운 이유(밀양여자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이유	그룹(명)		
	학생	학부모	계
학습 습관이 무너져 새학기 적응이 힘들	25	18	43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짐	43	52	95
다양한 체험 여건이 되지 않음	1	6	7
집에 혼자 있는 기간이 길어 불안함	5	6	11
기타	18	17	35
합계	92	99	191

미리별중학교의 경우, 다양한 체험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밀양여자중학교에 비해 약간 높았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설립한 공립형 기숙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개인 체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3> 걱정스러운 이유 이유(미리별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이유	그룹(명)		
	학생	학부모	계
학습 습관이 무너져 새학기 적응이 힘들	23	18	41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짐	25	36	61
다양한 체험 여건이 되지 않음	11	5	16
집에 혼자 있는 기간이 길어 불안함	5	6	11
기타	10	4	14
합계	74	69	143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년말 업무 처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은 1월 이전 졸업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불만 사항이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8월 중순에 2학기가 시작되어 더위로 인해 야외활동 특히 체육활동이 힘들다, 긴 겨울방학 기간에 교원이 41조 연수를 신청하여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하여 업무 처리에 불편이 많다는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단, 밀양중학교의 경우에는 설문이 ‘학사일정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응답율이 낮다. 그래서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밀양여자중학교과 미리별중학교에는 조건 없이 걱정스러운 점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조사를 의뢰했다. 그렇게 한 결과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학년말 업무 처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생활지도의 공백이었다. 학교의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소수 의견에 그쳤다.

<표 3-4> 걱정스러운 이유(세 학교 교직원)

이유 \ 그룹(명)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별중	계
학년말 업무 처리 시간 부족	4	14	16	34
긴 겨울방학의 학습 공백	0	3	6	9
긴 겨울방학의 생활지도 공백	0	9	7	16
학교 행정 공백	x	0	1	1
기타	2	2	0	4
합계(명)	6	28	30	64

12월 말 또는 1월 초 졸업 학사일정 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불만이나 불편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제시해 본다. 2015학년도에 학년말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1월 초 졸업을 선택했지만 2016학년도에는 다시 2월 졸업 학사일정으로 되돌아간 학교의 사례이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와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표 3-5> 2월 졸업식으로 되돌아간 창원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질문	대답
2015학년도에 1월 초 졸업 학사일정 선택 이유는?	교육과정 운영 시 2월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인다 학생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준다 교사에게는 연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2016학년도에 2월 졸업식 학사일정 선택 이유는?	학교 업무 처리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중학교의 2월 졸업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부모도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했다 -외부기관에서 졸업식 표창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업무 처리가 번거롭고 시간 낭비도 심했다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는 교사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업무 처리의 불편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모든 중·고등학교가 함께 1월 초 졸업을 한다면 불편한 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설문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월 초 졸업 및 종업 학사일정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긴 겨울방학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학사일정 또는 학기제 운영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배움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이 만족하는 학기제 또는 졸업 일정을 채택하는 것도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근대 학교 교육이 이 땅에 시작된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던, 2월 졸업의 전통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변화일 것이다. 변화에 찬성하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2014학년도부터 졸업식을 앞당겼던 다른 지역의 신문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년말 교육 정상화’의 한 방안으로 2월 등교 최소화형을 제안했던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도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경상남도의 각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1월 초 졸업 및 종업을 실시하고 있는 밀양 지역의 세 학교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사항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것은 세 번째 연구 과제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줄기가 될 것이다. 대책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세 가지다. 그 중에서도 졸업식을 앞당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교직원의 불만족 사유가 되는 ‘업무 처리 시간 확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아쉬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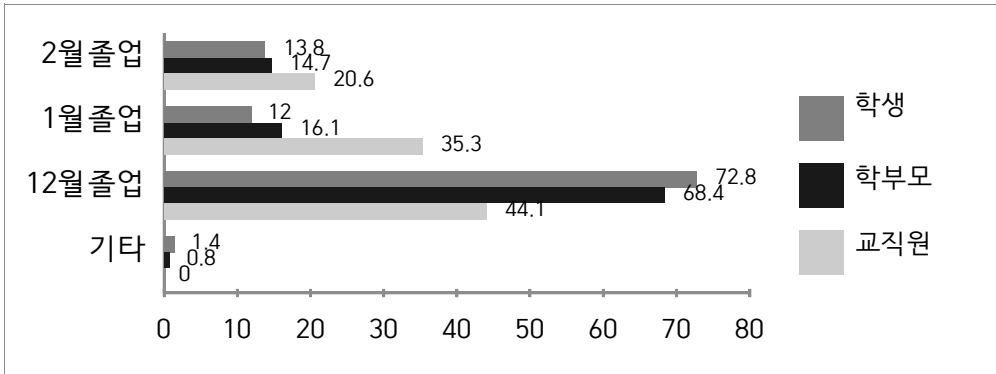
<표 3-6> 1월 이전 종료 학사운영에 따른 요구

그룹	내용	비고	해결 방안
학생 학부모	겨울방학 기간 학교의 계획 및 실시에 의한 체험활동 다양화	응답율 높음	있음
	겨울방학 기간 학교의 계획 및 운영에 의한 학생 동태 파악 및 생활습관 형성 지도	응답율 높음	있음
	겨울방학 기간 학교의 계획 및 운영에 의한 학습 프로그램 다양화	응답율 높음	있음
	2학기 개학일을 8월 하순으로 늦추기	기타 의견	없음
	여름방학 기간 30일 이상 확보	기타 의견	없음
	겨울방학 동안 학생이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타 의견	있음
	생활기록부 입력 기한을 2월까지로 늦추기	기타 의견	있음
	지역 교육지원청 내 각급 학교 협의로 졸업 및 종업 일정 맞추기	기타 의견	있음
교직원	학년말 업무 처리 시간 확보	응답율 높음	없음
	겨울방학 기간의 학교 행정 공백 대책 수립	기타 의견	있음
지역 사회	겨울방학 기간 학생 생활지도 계획 수립 및 실시	학부모 교직원	있음

다. 연구과제3. 1월 이전 졸업 학사일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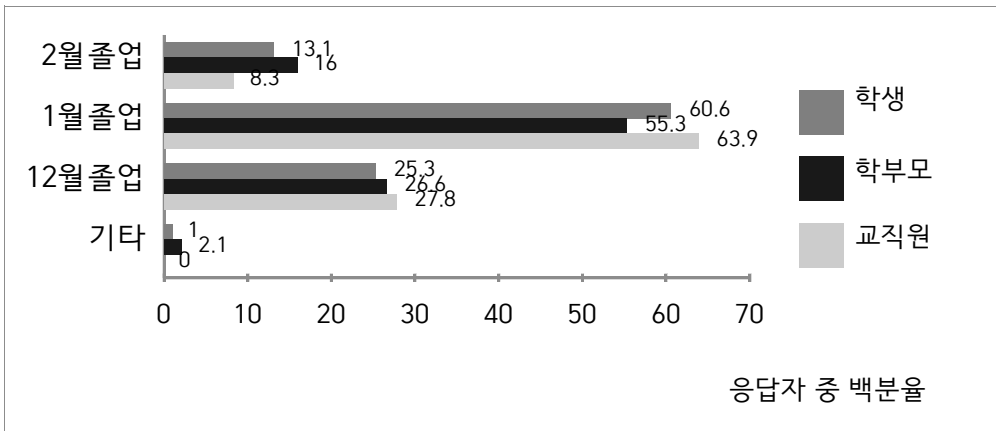
1) 2017학년도 학사일정 희망 조사 결과

밀양중학교는 학생의 72.8%, 학부모의 68.4%, 교직원의 44.1%가 12월 졸업 학사일정을 희망하였다. 종전의 2월 졸업을 희망한 비율은 학생이 13.8%, 학부모가 14.7%였다. 교직원의 경우 20.6%가 2월 졸업 학사일정을 희망해서 학년말 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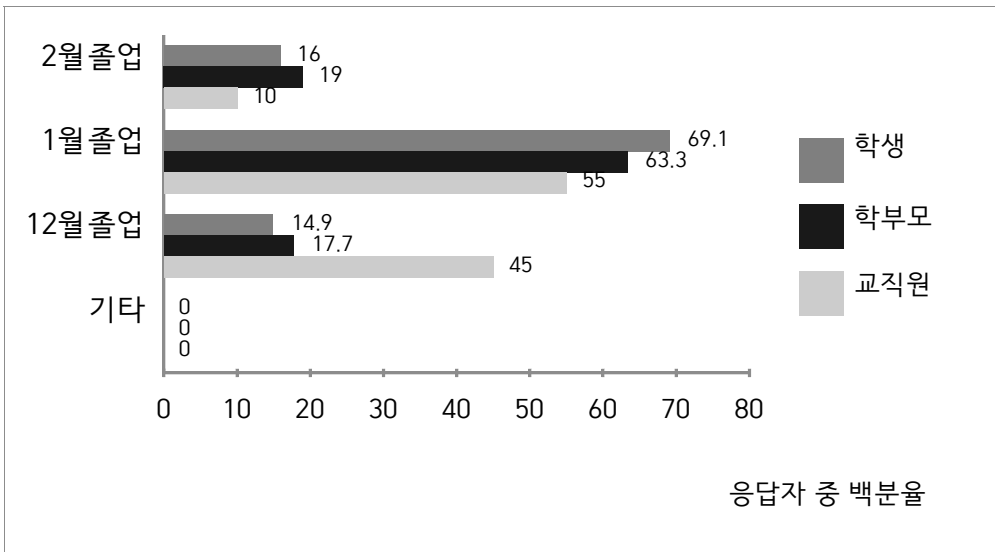
[도표 2-1] 2017학년도 학사일정 희망(밀양중학교)
 설문 참여 : 학생 593명 중 567명, 학부모 509명, 교직원 46명 중 34명
 12월 졸업은 12월 30일 기준, 1월 졸업은 1월 6일 기준, 2월 졸업은 2월 10일 기준

밀양여자중학교는 학생의 60.6%, 학부모의 55.3%, 교직원의 63.9%가 1월 초 졸업 학사일정을 희망하였다. 12월 졸업을 선택한 비율은 25~30% 정도였으며 2월 졸업 희망 비율은 학생과 학부모는 밀양중학교와 비슷하게 13~16%였지만 교직원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보다 낮은 8.3%가 나왔다.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의 업무 부담감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도표 2-2] 2017학년도 학사일정 희망(밀양여자중학교)
 설문 참여 : 학생 99명, 학부모 94명, 교직원 36명

미리벌중학교는 학생의 69.1%, 학부모의 63.3%, 교직원의 55.0%가 1월 초 졸업 학사일정을 희망하였다. 밀양여자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미리벌중학교도 2015학년도에 이어 2016학년도에도 1월 초 졸업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미리벌중학교의 설문 결과 중 밀양여자중학교와는 아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교직원의 12월 졸업 희망 비율이 45%로 나타난 점이다. 이것은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숙사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도표 2-3] 2017학년도 학사일정 희망(미리벌중학교)
 설문 참여 : 학생 94명, 학부모 79명, 교직원 22명

이상 밀양지역 3개 학교의 2017학년도 학사일정 희망 비율을 볼 때, 2월 졸업 즉 2015학년도 이전의 학사운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2월 졸업 학사운영을 하려고 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년말 특히 2월 등교 기간의 교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1월 이전 졸업 학사일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취약시기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졸업과 종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겨울방학으로 중단하게 되는 2월 졸업과 비교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년말 교육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꿈·끼 학사운영

내실화·다양화에도 도움이 된다.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기간’, ‘파행’, ‘정상화’ 같은 낱말도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2) 학년말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시수를 확보하여야 교과별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밀양중학교는 공교육 제도가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해서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학년말(2학기 2차 고사 종료~졸업 또는 종업식)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물론 학년 초 교과교육과정에서 학년말 수업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을 해놓고 있다. 이때 자유학기제 운영 경험과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과교육과정은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3학년의 경우에는 2학기 2차 고사(2016.10월 말) 이후 졸업 전까지 즉 학년말 기간이 2개월 정도 되므로 주제통합 수업을 1회~2회 실시하거나 진로탐색주년을 설정하여 각 교과 관련 진로수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통합수업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므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변형·응용할 수 있다.(교육부-정책-초중고 교육-자유학기제) 또한 교과와 관련 지어 진로탐색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있다.(교육부-정책-초중고 교육-진로교육)



[그림 1-1] 교육부홈페이지-자유학기제



[그림 1-2] 교육부홈페이지-진로교육

학년말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과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꼭 필요한 순서이다. 밀양중학교의 경우,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13시간의 주제통합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표 4> 교과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중심 수업 (밀양중학교 3학년)

대주제	세부주제	활동 방식	시수	관련교과
사랑이란?	플라톤의 '향연'에 나타난 사랑	역할극	2	국어
사랑의 여러 형태	숫자 속의 사랑	그림자극만들기	2	수학
	대중가요 속의 사랑	신문만들기	1	음악
	그림 속의 사랑	모둠갤러리워크	2	미술
	역사책 속의 사랑	연표나무만들기	1	역사
	한시 속의 사랑	모방시 쓰기	1	한문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지도만들기	1	도덕,사회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몸지도만들기	1	과학,진로와직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상편지만들기	1	기술가정
사랑과 나의 삶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나의 삶에 어떻게 구현할까	글쓰기	1	도덕,국어
시간합계			13	

또한 밀양교육지원청에서 2016년 8월에 발간한 밀양 열 사랑 교육 책자인 '자랑스러운 밀양의 열'을 활용한 수업도 준비하고 있다.



[그림 2] '밀양 열 사랑 교육 16~17쪽 말판놀이'

나) 창의적체험활동

학년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은 스포츠, 진로탐색, 전체 행사, 동아리, 예술, 강연회 등을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학생들은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 분야를, 여학생의 경우 예술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활동은 스포츠 분야, 밀양여자중학교는 전체 행사, 미리별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체행사 희망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스포츠와 동아리 분야가 비슷하고, 예술 활동도 4순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남녀공학의 특성이 설문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진로탐색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밀양중학교는 스포츠가 높고 예술이 4순위 안에서 빠져있으며, 밀양여자중학교는 예술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스포츠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미리별중학교는 예술이 5순위이긴 해도 다른 두 학교에 비해 희망 인원이 많은 편이다. 교직원의 경우 전체 행사와 진로탐색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미리별중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두 학교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기록한 강연회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이 학년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있다. 진로탐색활동과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나 예술 분야의 자유로운 활동, 그리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와 흥미와 관심에 따라 구성된 동아리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학년말에 다양한 창의적체험활동을 집중하는 것도 취약시기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민해 볼 만한 방향이다.

<표 5> 희망하는 학년말 프로그램 *주어진 보기 중 1~2개 선택

그룹(명) 이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별중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별중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별중
진로탐색	128	20	12	207	27	34	13	17	6
동아리	218	37	30	183	31	23	8	10	1
예술	52	21	21	58	21	11	2	6	5
스포츠	249	10	31	196	7	17	15	5	8
작품 전시	28	2	3	11	1	3	2	1	1
전체 행사	177	64	60	151	64	33	15	14	9
강연회	33	1	2	71	4	7	2	6	11
상담	9	3	4	27	8	2	2	0	1
기타	20	4	1	4	0	1	1	0	0
합계	894	158	163	904	163	130	59	59	42



여기서는 설문 결과와 관련 지어 밀양중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밀양중학교의 학년말 창의적체험활동 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학년말 창의적체험활동 (밀양중학교)

행사명 또는 내용	일자	시수	학년	영역	비고
스포츠 클럽(축구, 풋살) 활동	10.4~12.30	30~	1,2	동아리	일과전, 점심시간
жат나무 축제(체험마당-가장행렬-무대행사)	11.17~11.18	10	전체	자율	방과후, 점심시간, 체육 및 음악 교과
스포츠 리그 (축구, 풋살, 족구, 배드민턴)	11.7~12.28	16~20	3	동아리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스포츠 리그 (축구, 풋살, 배드민턴)	11.21~12.7	5~10	1	동아리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스포츠 리그 (축구, 풋살, 족구, 배드민턴)	12.8~12.23	10~15	2	동아리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합창제	12.21	3	전체	자율	학급별퍼포먼스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	12.23	2	전체	자율	
동아리	11.25	2	전체	동아리	
동아리	12.16	2	전체	동아리	
봉사	11,12	2	전체	봉사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망한 스포츠 활동은 학년 및 학급별로 실시하는 스포츠 리그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실시를 기본으로 삼아 체육이나 스포츠클럽 시간을 조정하여 조건이 맞는 학급은 일과 중에 실시할 수도 있다. 밀양중학교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에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다.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흥미가 없는 분야, 즉 다른 교과 수업도 참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밀양중학교는 2016년에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축구와 풋살, 그리고 족구 경기장을 각각 1,2,2개씩 마련하여 리그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리그전 종목 중 배드민턴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흥미 그리고 열정적인 활동 참여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내 스포츠 리그를 학년말에 학급 대항 형식으로 집중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수업 부분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밀양여자중학교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원한 예술 분야의 활동을 학년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교육과정도 효과적인 것이다.

<표 7> 2015, 2016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밀양중학교 결과

종목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축구	.	준우승
탁구	.	3위
풋살	준우승	3위

스포츠 리그 다음으로 밀양중학교에서 학년말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창의적체험활동은 학교 전체행사이다. 시기상으로는 축제가 가장 먼저 실시된다. 축제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가장행렬이 있다. 학급별로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발표하는 형식이다. 특정 분야에 끼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 위주의 무대 발표 분야와는 다르게 학급의 모든 학생과 담임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당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축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스스로 찾고 남다른 끼와 재능을 펼칠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담임 선생님 및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하나의 완결된 무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장행렬은 학생 자신의 성장이나 진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 뿐만 아니라 교칙이나 학교폭력 같은 교내 문제, 환경이나 지역 문화제 같은 지역적인 관심 분야, 더 넓게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고용 같은 우리 사회를 향한 비판까지 다양하다.

<표 8> 2015, 2016 밀양중학교 축제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비고
체험 마당	일시	11.18 오전	11.17 오후	교과 및 동아리활동 결과 전시 또는 체험 부스 운영
	시수	3	3	
	주체	교과 및 동아리	교과 및 동아리	
가장행렬	일시	11.8 오후	11.18 오전	학급자치활동 정리 및 평가
	시수	2	3	
	주체	학급자치회	학급자치회	
어울림 마당	일시	11.8 오후	11.18 오후	학생자치활동 정리 및 평가
	시수	2	4	
	주체	학생자치회	학생자치회	

학급별로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가장 행렬이 있다 보니 준비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교과수업 시간을 축제 준비로 활용하기도 한다. 주로 음악과 체육 시간을 활용하며 다른 수업 시간에도 교과를 활용한 축제 준비 활동은 교과담당교사의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제 준비를 위한 학급회의는 국어교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미술 시간을 이용하여 분장 계획이나 준비물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3학년의 경우에는 학년말 시간이 넉넉하므로 더 많은 교과시간을 가장행렬 준비와 관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 교과수업과 연결하여 활동하는 것은 필수요소이다. 이와 같이 학교축제가 일년간 학교교육과정을 갈무리하여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2016학년도에는 2015학년도에 비해 3시간을 늘려서 전날 오후부터 다음 날 하루 종일 총 10시간으로 계획하고 준비 중이다.

축제가 끝나고 약 한달 뒤에 합창제가 있다. 그 사이에 2학년의 2학기 2차 평가가 있다. 이 기간이 3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주제통합수업을 이 기간에 실시한다. 또한 진학이나 지역의 외부 강연 등도 이 기간에 배치한다. 그렇지만 3학년 학생들이 이 기간에 스포츠 활동 다음으로

원하는 활동은 합창제 준비이므로 교과수업 진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밀양중학교는 합창제를 지정곡 없이 자유곡 1~2곡에 맞춰 학급별로 노래와 몸짓을 결합한 무대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형식은 순수한 합창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학생만 있는 중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음악적인 완성도에 구애 받지 않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한다. 합창제는 축제의 가장행렬처럼 학급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한다. 3학년은 축제 후 합창제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과수업 시간에 연습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2학년의 2차 고사 준비를 위해 3학년 학생들이 합창 연습을 자제하고 스포츠 리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학년의 2차 고사가 끝나면 합창제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주 정도의 기간에 축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음악 교과 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준비한다. 이 때에도 교과수업과 관련지어 잠깐 짬을 내어 연습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학급이 일괄적으로 교과수업을 할애하여 합창 연습을 하는 등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하지 않는다. 합창제 결과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3위까지 시상하고 있다. 2015학년도 기준으로 합창제 참여를 포기한 학급은 없었다. 그리고 준비 과정 및 무대 공연에서 학급자치회의 임원이 아닌 학생이 뜻밖의 재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합창곡이나 퍼포먼스도 다양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견하고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표 9> 2015, 밀양중학교 합창제

학반	곡 명	비고	학반	곡 명	비고
1-1	나팔바지		2-4	진진자라+아리랑	수화 활용
2-2	Feliz Navidad +정주나요		3-7	해피 +어쩌다 마주친 그대	
3-2	미운오리새끼 +나팔바지		1-3	어쩌다 마주친 그대	완성도높음
1-2	풍문으로 들었소	담임과 학생 조화	2-5	창박을 보라	
2-3	강북 멋쟁이		3-1	알 이즈 웰 +강북 멋쟁이	
3-5	문을 여시오 외 1		1-4	천개의 바람이 되어	춧불 퍼포먼스
1-6	병수송		2-1	살리고 달리고	
2-6	분위기 좋고 좋고		3-3	그대에게+담다디	담임참여
3-4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캔디 외1	학급이 함께 즐김	2-7	백세인생+비행기	
1-5	키 작은 꼬마이야기		3-6	정주나요+졸업	

합창제가 끝나면 다음 학년도의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 활동 역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3학년 학생들은 관련이 적기는 하지만 아예 관심 밖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이 기간에 3학년 학생들은 졸업식 준비를 한다. 졸업식은 2015학년도의 경우, 'Brovo My School'이라는 표제로 학생자치회에서 제작한 동영상 송사 겸 답사를 대신하여 상영했다. 또한 학급별로 한해의 활동이 담긴 사진을 모아 만든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띄웠다. 이 영상에는 선생님과 부모님 및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인사와 후배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함께 담았다. 2016학년도에도 학생자치회와 학급이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졸업식을 만들 계획이다.

3) 겨울방학 학교 프로그램 및 생활 지도 계획

가) 학교 계획에 의한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12월 말 또는 다음 해 1월 초 졸업 또는 종업으로 2월 초 졸업 또는 종업에 비해 1~2주 길어진 겨울방학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은 모두 학교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세 학교 모두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2순위인 자율동아리 활동도 비슷한 비율로 희망하였다. 3순위는 1,2 순위와 차이가 크게 나기는 했지만, 세 학교 모두 방과후학교 참여였다. 학부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학생과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부모는 자기주도학습과 독서 프로그램 비율이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는 달리 방과후학교 또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미리별중학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과 독서 부분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숙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방학 중에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가 없으며, 가정과 학교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방학 중 등교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희망하는 겨울방학 학교 프로그램 *주어진 보기 중 1~2개 선택

이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벌중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벌중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벌중
여행	35.4	36.6	31.5	28.5	35.2	36.4	22.8	7.5	10.8
자율동아리	34.6	31.7	23.7	26.8	24.5	22.0	15.8	8.3	10.8
방과후학교	10.1	10.3	15.8	10.0	15.8	13.6	36.9	24.5	5.4
자기주도학습	8.7	8.3	11.4	13.9	12.2	11.9	10.5	17.0	32.4
독서	6.2	3.4	9.7	13.3	5.8	13.6	7.0	20.8	24.3
강연회	3.5	4.8	6.1	4.9	2.9	2.5	7.0	1.9	16.2
기타	1.5	4.8	1.8	2.6	3.6	0	0	0	0
합계	100	99.9	100	100	100	100	100	100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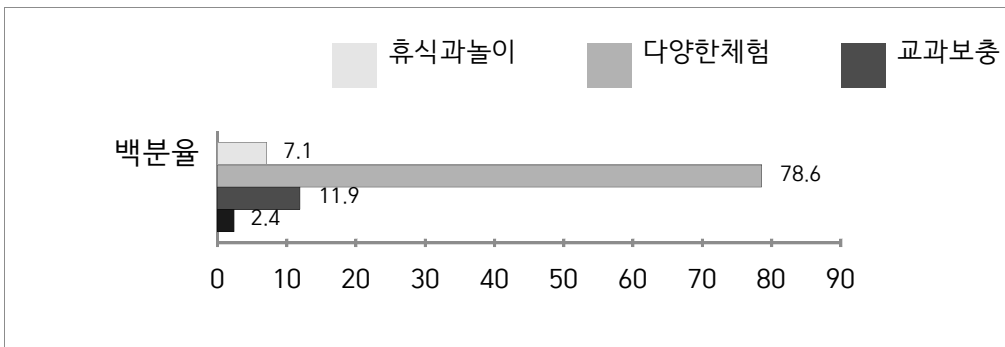


밀양중학교는 2016학년도에 12월 말 졸업 및 종업 학사운영으로 겨울방학이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더 길어졌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의 겨울방학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 1월 초에 졸업하는 학교에 비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학기 학교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계획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명회 자리에서 곧바로 설문 항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상보다 낮은 응답율이 나오기는 했지만, 의미는 있다고 판단한다. 이 설문에서 제공한 학교 계획은 1차 설문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1> 2차 설문 조사 시 소개한 겨울방학 학교 프로그램

분야 \ 계획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비고
여행	삼삼오오 작은 여행	미정	예산 확보 노력 중
자율동아리 활동	없음	장소 제공	학생들이 원할 경우
방과후학교	3개 강좌 29명 참여	5개 이상 강좌 개설 예정	희망 분야 모두 개설 가능.*점심 겸할 수 있는 요리강좌 개설
주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영어 캠프	영어 캠프	3주
	없음	소책자 발간 배부	100쪽 정도의 소책자에 교과융합 과제 제시
독서 프로그램	없음	도서실 개방	학생들이 원할 경우
강연회	없음	없음	응답을 낮음
기타	천연화장품 만들기	핸드메이드교실	복지실 3주 18시간
	문화체험	진로체험	40명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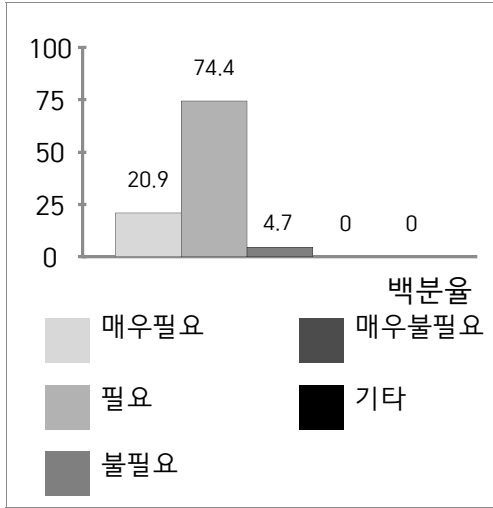
이 설문에서 학부모는 겨울방학에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보충은 11.9%에 불과했다. 그리고 휴식과 놀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로 더 낮았다. 겨울방학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은 기타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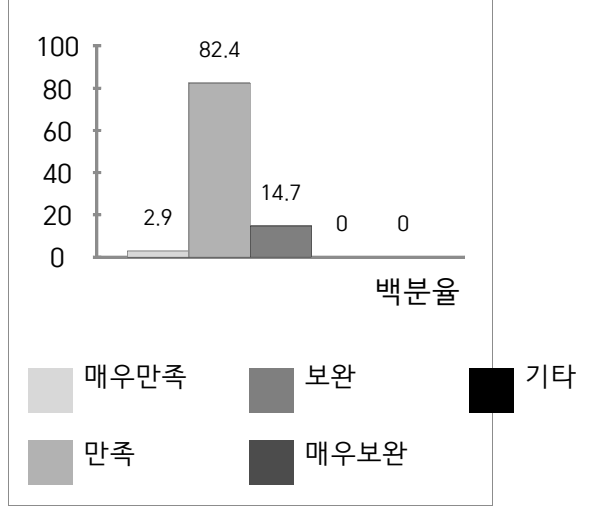
[도표 3] 겨울방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밀양중학교)
설문 참여 : 2학기 학교교육과정설명회 참석 학부모 89명 중 42명

겨울방학 학교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겨우 4.7%에 불과했다. 겨울방학 체험활동 계획은 1차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고려하여 세운 것이었지만, 14.7%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진로나 문화 분야의 체험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 분야에서 학교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방학 중 개인 체험 계획이 예상보다 적은 것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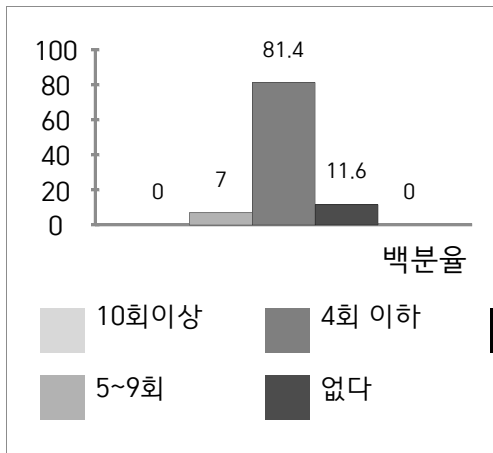


[도표 4-1] 겨울방학 계획 필요성(밀양중학교)
설문 참여 : 학부모 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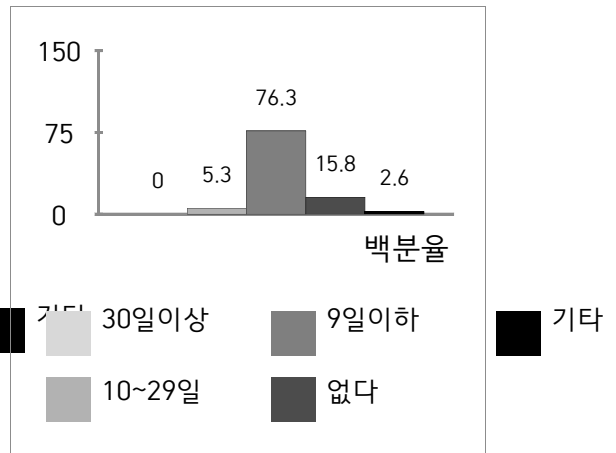


[도표 4-2] 겨울방학 계획 만족도(밀양중학교)
설문 참여 : 학부모 34명

방학 중 개인 체험 계획은 81.4%가 4회 이하라고 응답했다. 또한 총 체험일수는 9일 이하가 76.3%로 나타났다. 15.8%는 체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을 통해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학교 계획에 의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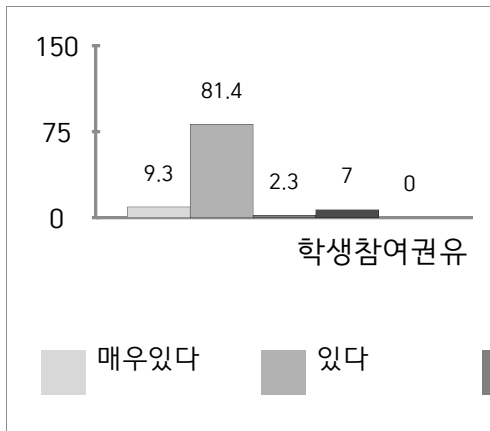


[도표 5-1] 겨울방학 개인 체험 계획 횟수(밀양중학교)
설문 참여 : 학부모 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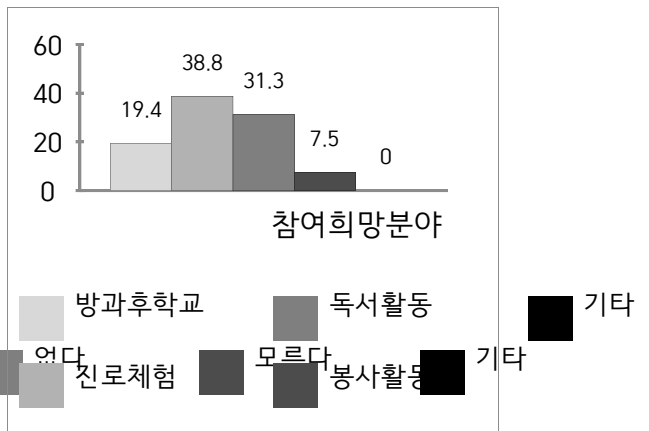


[도표 5-2] 겨울방학 개인 체험 계획 일수(밀양중학교)
설문 참여 : 학부모 43명

체험활동에 이어 1차 설문에서는 높은 응답율을 보이지 않았던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왔다. 당초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중에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특별히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설문을 통해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활동을 방과후학교 강좌에 포함하거나 자율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 방학 중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학생에게 참여를 권유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90.7%로 나타나 2개월의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표 6-1] 학생 참여 권유 여부
설문 참여 : 학부모 43명



[도표 6-2] 참여 희망 분야*1~2개선택
설문 참여 : 학부모 43명

밀양중학교는 2015학년도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6학년도에도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1차와 2차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표 12> 밀양중학교 2016학년도 겨울방학 학교 계획

설문 결과 순위	프로그램 주제 또는 운영 계획	예정 인원
여행	삼삼오오 작은 여행	50명 내외
자율동아리활동	자율활동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30명 내외
방과후학교	요리교실 포함 5개 이상	70명 이상
자기주도학습	교과통합활동과제 책자 제작 및 배부	1,2학년
독서	도서관 개방, 희망자 독서 프로그램 진행	30명 내외
영어캠프	Winter english camp	30명 내외

설문조사에서 세 학교 모두 희망하는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첫손가락에 꼽았던 여행활동도 학교 계획으로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밀양중학교의 경우, 2015학년도에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의 관계증진을 목적으로 '삼삼오오 떠나는 작은 여행'을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교육급여대상 학생들을 포함하여 4~5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팀을 짜서 함께 가고 싶은 선생님을 모시고 계획을 세웠다. 체험 계획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양식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사 선생님께 제출했다. 여행 기간은 1월 8일에서 29일로 약 3주간 이내 평일을 원칙으로 하였다. 5명 기준으로 10팀을 계획하여 신청 팀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열어 교육급여대상 학생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팀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11팀이 최종 선정되어 2016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학생 53명이 11명의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예산은 교통비, 체험비, 식비로 1,262(천원)이 소요되었다.

2016학년도, 즉 2017년 1~2월에도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담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과 관련 있는 곳을 찾아 계획을 세우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담임 중심으로 실시하면 여행 체험과 함께 생활에 대한 상담까지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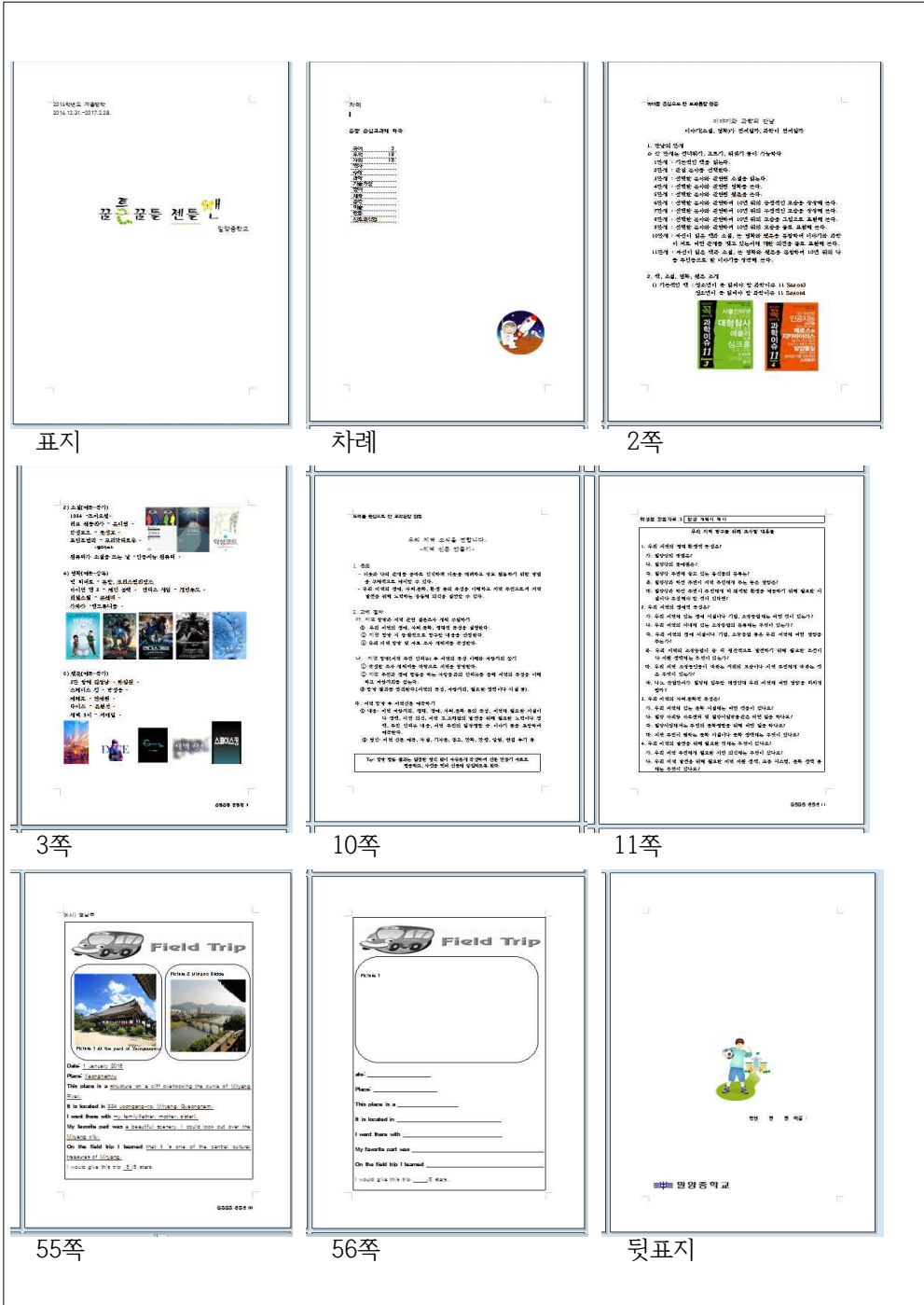
<표 13> 밀양중학교 2015학년도 겨울방학 '삼삼오오 작은 여행'

일 정	인원	활동장소 및 활동	인솔자
2016.1.11.(월)	5	부산 누리마루, 아이스링크장	교사1명
2016.1.15.(금)	6	대구 허브힐즈, 아이스링크장	교사1명
2016.1.18.(월)	4	경주 사적공원, 유적지, 안압지	교사1명
2016.1.20.(수)	4	대구 달성공원, 팔찌만들기, 트랩코리아	교사1명
2016.1.21.(목)	4	부산 실내 동물원, 도자기체험	교사1명
2016.1.25.(월)	5	부산 아쿠아리움, 아이스링크장	교사1명
2016.1.27.(수)	6	부산 방탈출, 가방만들기	교사1명
2016.1.28.(목)	6	부산 감천마을, 도자기체험	교사1명
	4	부산 아쿠아리움, 아이스링크장	교사1명
2016.1.29.(금)	5	부산 감천마을, 도자기체험	교사1명
2016.2.5.(금)	4	김해 테마파크, 박물관	교사1명
계	53		11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습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과통합 활동을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각 교과 교사들이 다른 교과와 통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여 담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여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면서 학습 습관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 겨울방학 동안 공부하는 습관이 무너져 새 학기에 적응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활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생활 태도가 흐트러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자기관리’ 같은 활동과제는 긴 겨울방학에 신체의 리듬을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찾거나 다지는 계기도 될 수 있다.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상급 학년에서 심사를 통해 시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표 14> 교과통합 활동자료 안내 책자 내용 구성 계획

자료명	꿈을 찾는 시간-방학(가제)		
취지	긴 겨울방학으로 학습과 생활 지도에 생길 공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를 만든다.		
내용	교과 융합으로 자신의 삶과 자연 환경과 사회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		
대상	1,2학년 대상 360권		
구성	중심교과	쪽수	비고
	국어	8	이야기와 과학의 만남
	사회	8	논술 맛보기
	역사	6	밀양독립운동 연표 만들기
	도덕	6	지역 신문 만들기
	수학	8	실생활 속 수학과와의 만남
	과학	8	영화 마션(Martain)을 통한 화성 바로 알기
	기술가정	6	건강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자기관리
	체육	6	운동할 때 내 표정 글로 묘사하기 또는 그리기
	음악	6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와 곡 감상
	미술	6	미술을 통하여 주변 환경과 소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영어	8	밀양 열 현장 방문 체험을 영어로 소개
	한문	8	한문 타고 떠나는 겨울방학 여행
진로	10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 인터뷰	
합계	94		



[그림 3] 교과통합 겨울방학 활동자료 책자

해를 거듭할수록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참여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탓이다. 하지만 긴 겨울방학으로 인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교육급여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밀양중학교에서는 여름방학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요리교실을 확대하여 교육급여대상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선생님이 이 강좌를 맡아 운영했다. 또한 복지사 선생님도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을 중심으로 ‘천연화장품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캘리그래피와 핸드메이드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방학에도 계속 학교에 출근하는 교직원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고 복지지원 대상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낙인효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대상이 아닌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강사비도 학교 회계 또는 복지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보다 2배 이상 기간이 긴 만큼 예산도 더 확보해 놓고 있다.

영어회화전문 선생님도 여름방학에 복지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였다. 특히 오전에는 신청 희망자로 꾸린 영어캠프 활동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Fun Fun English’ 를 통해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깨울 수 있는 학생 활동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강좌 역시 이번 겨울방학에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표 15> 밀양중학교 2016학년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강좌 명	기간	시간	인원 (자유수강권)	2016 겨울방학
1	Fun Fun English	7.22~8.2	14:00~16:35	9명(6)	개설
2	바이올린&비올라	7.25~8.3	09:00~12:00	9명	외부강사
3	천연화장품 만들기	7.25~28, 8.1~5	10:00~13:00	12명(11)	핸드메이드 교실
4	요리교실	8.1~10	11:00~14:00	10명(7)	개설
5	배드민턴반	8.3~12	09:00~12:00	15명(5)	30명
6	탁구반	8.3~12	14:00~17:00	8명(2)	
				63명	

밀양중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겨울방학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으로 부산 여행을 통해 추억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우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여행에서 실시한 부산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40명 모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대상 학생은 14명이 참가하였다. 2016학년도 겨울방학에는 철도 체험을 구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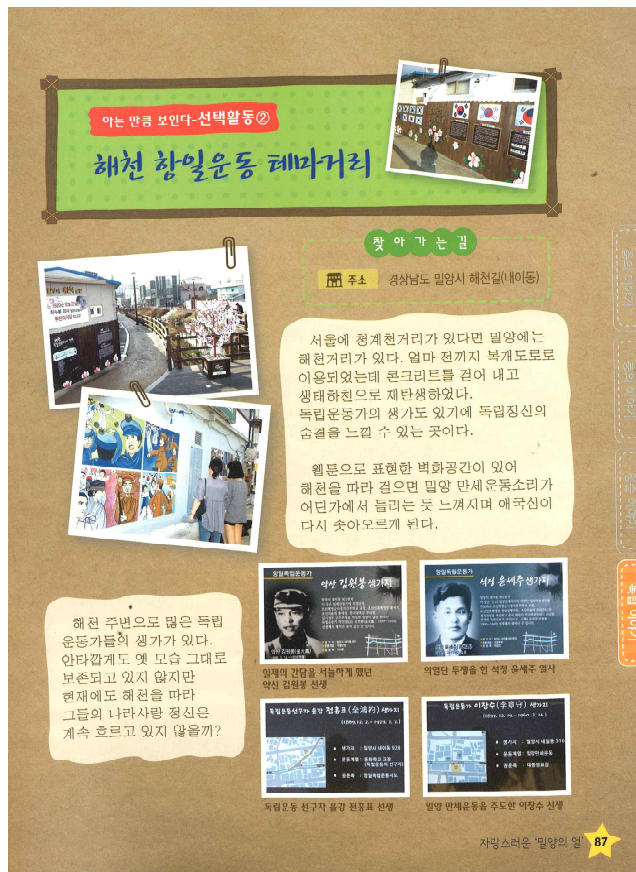
<표 16-1> 2015, 2016학년도 겨울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

구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일시	2016.1.20.(수) 08:30~18:00	2016.2월 중
장소	부산 일원	마산 일원
인원	신청 학생 40명, 지도교사 3명 (복지사 포함)	신청 학생 20~25명, 지도교사 2명(교육복지사 포함)
활동	부산 어묵 역사 해설 듣기	철도 체험, 전차선 안전체험
	상형 피자, 어묵 피자 만들기 체험	레일바이크&건널목 체험
	부산대학교 캠퍼스 투어	NC다이노스관, 전기관 등 자유관람

2016학년도에는 ‘지역을 먼저 알자’는 주제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3학년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로서 체계적인 지역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밀양 지역의 독립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도 학생들은 어렵풋하게 독립운동가 한두 명의 이름 정도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밀양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체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12월 말에 실시하는 선거에서 새로이 선출되는 2017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과 2016학년도 임원 및 희망하는 학생들 4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강의와 해설을 맡아줄 전문가도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회원인 현직 교사로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2학년과 현재 진행 중인 1학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장소로 선정하였다.

<표 16-2> 2016학년도 겨울방학 우리 지역 문화체험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일시	2017.1.11.(수) 09:00~12:30	강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소	밀양중학교 도서실 및 해천 항일운동 테마거리	
인원	40명 내외(학생회 임원 및 신청자)	3학년도 신청 가능
활동	밀양독립운동사 강의(학교 도서실)	
	걸어서 이동하며 강사와 문답 및 토의	
	강사의 해설과 안내로 해천 항일운동 테마거리 체험	



[그림 4] '자랑스러운 밀양의 얼' 87쪽

나) 생활지도 계획

설문을 실시한 밀양 지역 세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 1월 초 이전 졸업 학사일정에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흐트러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 지도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겨울방학 중인 재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졸업생도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제도는 학년제를 기본으로 하여 한 학년을 2학기로 나누고 있다.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월 말일까지는 학생이 특별한 문제 없이 제대로 가정이나 사회의 돌봄을 받으면서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긴 겨울방학 동안 교사가 반드시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는 별도로 담임 수당을 받으면서 방학이라고 해서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를 묻는 학부모 또는 사회의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세 학교 모두 학급 대화방 개설, 학교 전체 문자 발송, 담임 전화 등을 활용한 생활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역 순찰 강화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표 17> 희망하는 겨울방학 생활 지도 프로그램 *주어진 보기 중 1~2개 선택

그룹 (%) 이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벌중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벌중	밀양중	밀양여중	미리벌중
학교문자	29.5	19.3	31.3	34.0	24.0	33.7	19.7	22.9	10.3
학급대화방	33.5	31.9	38.3	22.8	38.0	40.2	35.7	35.4	41.4
담임전화	15.4	20.2	19.5	24.7	14.8	21.7	37.5	33.4	44.8
지역순찰	17.7	21.9	10.9	16.4	20.9	4.4	7.1	8.3	3.5
기타	3.9	6.7	0	2.1	2.3	0	0	0	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밀양중학교에서는 연속되는 2개월의 겨울방학 생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담임의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일대일 상담 또는 SNS를 활용하여 다자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2015학년도 겨울방학에는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담임과 소속 학생들이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학기 중에도 학생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 형성이 되어 있었던 20~30대 교사들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에도 여전히 교사와 학생들은 활발하게 소통 구조를 작동시키며 관계를 이어나갔다. 2016학년에는 학교의 방학 계획에 생활지도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화시키고 알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메신저를 활용하여 학부모 전체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여 학생들의 생활을 확인하는 방법도 채택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2015학년도에는 특별히 안내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발송했다. 2016학년도에는 한달에 2회 총 4회를 발송할 예정이다. 여름방학에 실시했던 방학 중 학생 교내봉사활동 지도교사를 담임 위주로 배정하여 긴 방학 동안에 한번 정도 직접 얼굴을 보고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계획이다. 2016학년도 여름방학 이전에는 교내봉사활동 지도교사를 순번대로 배정해 왔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나 시내 중심가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교외 순찰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표 18> 겨울방학 생활 지도 계획(2015, 2016 비교)

방식	횟수 또는 일수	
	2015학년도	2016학년도
학교 전체 문자로 점검	2회	정기적(월 2회 이상)
학급별 대화방 활용	권장	필수
담임의 전화 또는 문자 상담	자율	정기적(월 2회 이상)
지역 순찰 강화	12일(교사 3명)	16일(교사 5명)
교내봉사 시 지도교사로 담임 배정	해당 없음	학급별 2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사제동행 참가	자율 실시	논의 중

다) 돌봄 기능을 더한 프로그램

방과후학교에 '요리교실'을 개설하여 교육복지급여 대상 학생들에게 개인 상담을 실시하여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요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상담사 선생님이 강사를 맡아 이미 2016학년도 여름방학에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겨울방학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대상 학생들의 수강비와 재료비는 자유수강권으로 지원하고,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수강비의 일부를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며 재료비는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는 요리 강좌라는 점 덕분에 사실상 돌봄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 강좌 부제목도 '내가 만드는 후다닥 한끼'이다. 장소는 학교 가사실을 활용하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대부분 조리 관련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어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요리 과정에 흥미와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진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어울려 서로 배워가며 직접 만든 요리로 점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난 후, 일부 복지대상 학생들은 오후에도 학교에 계속 머물면서 담당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여름방학에는 1회 3시간, 8일 동안 24시간을 운영했다. 겨울방학 기간은 여름방학에 비해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운영 일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강좌 중 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캘리그래피.핸드메이드 교실이다. 이 역시 수강자 중 92%가 교육복지대상 학생들로서 새로운 배움을 체험하면서 복지사의 관심과 보살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영어회화전문 선생님이 운영하는 'Fun Fun English' 역시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부족하고 학력이 낮은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학력 부분에 대한 돌봄을 학교에서 이어가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방과후학교 실시 기간이나 시간을 다르게 하여 돌봄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한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행이나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보살핌과 돌봄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긴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개인 체험학습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2016학년도 겨울방학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015학년도 겨울방학, 2016학년도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원한다면 도서실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조성한 친환경 힐링 운동장과 편하게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리모델링을 마친 도서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주제는 ‘중 3, 고 3 학생의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다. 긴 주제문에서 ‘학년말’과 ‘효율적’이라는 낱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학년말’의 교육과정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교육계 내부의 판단과 외부의 비판을 인정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을 찾으려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탐색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주제통합수업 등의 성과를 활용하면서 경남 지역 21곳의 중고등학교가 2016학년도에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식의 효과를 입증하려 하였다. ‘현장 연구’라는 점에 기대어 2015학년도의 1월 초 졸업에 이어 2016학년도는 12월 말 졸업 학사일정을 운영 중인 밀양중학교를 ‘현장’으로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연구 주제의 뒷부분 즉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이 달성되었는가를 연구해 보기 위한 양적 자료로 최근 3년간의 해당 기간 무단결석일수를 비교해 보았다. 단적으로 2월 초에 졸업한 2014학년도에 비해 1월 초에 졸업한 2015학년도의 무단결석일수는 약 12분의 1에 불과했다. 두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학사일정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2015학년도에 밀양중학교와 더불어 1월 초에 졸업을 실시한 밀양여자중학교와 미리벌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는 기타와 보통 응답율을 제외한 만족 비율이 세 학교 평균으로 학생은 86.13%, 학부모는 90.52%, 교직원들은 91.15%였다.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학년말 기간은 존재하고 새로운 문제도 발견되었다. 긴 겨울방학의 학습과 생활 지도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학년말과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연구과제였다. 설문에 참여한 세 학교 모두 스포츠 또는 예술 활동, 그리고 전체행사나 진로탐색활동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겨울방학에는 개인 체험보다 학교 계획에 의한 여행, 문화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학교의 대책을 세 번째 연구과제로 삼아 밀양중학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상과 같이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 학사일정 운영이 ‘중3, 고3 학생의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으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이 요구하는 학년말과 겨울방학의 교육활동에 대해 수많은 학교 현장 중 한 곳을 예로 들어 연구해 보았다. 따라서 단순하고 거칠게 정리한다면 졸업 일자를 앞당기면 학년말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제언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설문 분석에서 90%의 만족도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결과도 있었다. 2017학년도에 희망하는 학사일정으로 1월 초 또는 12월 말 졸업을 선택한 비율이 학생과 학부모는 평균 84.9%와 82.47%이고 학교 간의 차이도 5% 미만이었지만, 교직원은 가장 낮은 학교가 79.4%, 가장 높은 학교가 100%로 학교 여건에 따라 20%의 차이를 나타냈다. 학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이 소통하고 논의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함께 학교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요구 사항이 있다. 교직원의 50%가 지적한, 학년말 업무 처리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료 교사로서 몹시 아쉽지만 또 다른 연구자의 등장을 믿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2014.11.4.) '15년부터 초·중·고 방학이 다양해진다
경상남도교육청(2015.1.28.) 2015.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방안 안내
경상남도교육청(2015.6.2.) '16학년도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운영 계획
경상남도교육청(2016.2.2.) 2016년 꿈.끼 탐색주간 운영 계획(안)
경상남도교육청(2016.5.4.) 2016년 꿈.끼 학사운영 내실화·다양화 장학지원단 연수 계획
경기도교육청(2016.1.24.) 4분기 학사제 적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3.5.) 교육학용어사전
김성로, 정형명(2010) 다학년제에 관한 고찰
윤종혁(2008)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김영철(2006) 학제개편의 정책과제
이기정(2007) 학교개조론
이용철(2009) 21세기 현실 교육에 걸맞은 학제 단축 개편안 연구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2016) 자랑스러운 밀양의 얼

[부록]

- 설문지 -

<밀양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2015학년도 학사일정 운영 및 2016학년도 계획 만족도(학부모)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과 2016학년도 계획 만족도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는 효율적인 학사일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6. 7.
 밀 양 중 학 교 장

※ 해당 항목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1.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 2015학년도에 2학기를 2015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로 운영하였습니다. 본교의 학사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미흡하다 ⑤ 매우 미흡하다
- ⑥ 기타 _____

3. 2016학년도 2학기는 2016년 8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12월 30일에 졸업 및 종업식을 합니다. 본교의 학사운영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스럽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 ⑥ 기타 _____

3-1. 2,3번 문항에서 ①,②항에 답한 경우, 다음 중에서 그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년말 수업 부실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 ② 긴 겨울방학에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어서
- ③ 다음 학년 또는 상급학교 준비 기간이 길어서
- ④ 기타 _____

3-2. 2,3번 문항에서 ④,⑤항에 답한 경우, 다음 중에서 그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습 태도가 흐트러질까 염려스러워서
- ② 생활 태도가 흐트러질까 걱정스러워서
- ③ 겨울방학 기간에 다양한 체험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 ④ 기타 _____

4. 학년말 고사 실시 후 원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진로탐색 활동 ② 동아리 활동 ③ 예술(음악, 미술)활동 ④ 스포츠 활동
- ⑤ 작품 전시 활동 ⑥ 학교 전체 행사 활동(축제, 합창제, 체육대회 등)
- ⑦ 외부 강사 강연 ⑧ 상담 활동
- ⑨ 기타 _____

5. 겨울방학 기간에 원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친구 및 교사와 함께 하는 여행 ②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③ 다양한 방과후학교 개설
- ④ 주기주도학습 프로그램 ⑤ 독서 관련 프로그램 ⑥ 강연회
- ⑦ 기타 _____

6. 겨울방학 기간에 원하는 학생 생활 지도 방안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의 정기적인 문자 메시지 ② 학급별 단체 대화방 개설로 정보 공유 및 상담
- ③ 담임의 정기적인 전화 또는 문자 상담 ④ 지역 내 위험 지역 순찰 지도
- ⑤ 기타 _____

7. 2017학년도에 원하는 학사일정(안)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본교 학사운영 방식			
학년도	겨울방학	종업 또는 졸업식	봄방학
2014학년도	2014.12.30.~2015.2.1.	2015.2.10.	2015.2.11.~2.28.
2015학년도	2016.1.9.~2016.2.29.	2016.1.8.	없음
2016학년도	2016.12.31.~2017.2.28.	2016.12.30.	없음

- ① 2014학년도 방식 ② 2015학년도 방식 ③ 2016학년도 방식
- ④ 기타 _____

8. 본교의 학사운영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밀양중학교교직원>

2015학년도 학사일정 운영 및 2016학년도 계획 만족도(교직원)

2015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과 2016학년도 계획 만족도에 대한 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는 효율적인 학사일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6. 7.

밀 양 중 학 교 장

※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직급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교장 또는 교감 ② 담임교사 ③ 비담임교사 ④ 부장교사 ⑤ 행정직 ⑥ 그외

2. 2015학년도에 2학기를 2015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로 운영하였습니다. 본교의 학사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미흡하다 ⑤ 매우 미흡하다
⑥ 기타 _____

3. 2016학년도 2학기는 2016년 8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12월 30일에 졸업 및 종업식을 합니다. 본교의 학사운영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스럽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⑥ 기타 _____

3-1. 2,3번 문항에서 ①,②항에 답한 경우, 다음 중에서 그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년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효과적이어서
② 학년말 학생 생활지도에 효과적이어서
③ 겨울방학 기간 활용으로 다양한 연수에 효과적이어서
④ 기타 _____

3-2. 2,3번 문항에서 ④,⑤항에 답한 경우, 다음 중에서 그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년말 업무 처리 시간 부족
② 긴 방학 동안의 학습 공백
③ 긴 방학 동안의 학생 생활 지도 공백
④ 기타 _____

4. 학년말 고사 실시 후 실시할 학교 프로그램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진로탐색 활동 ② 동아리 활동 ③ 예술(음악, 미술)활동 ④ 스포츠 활동
- ⑤ 작품 전시 활동 ⑥ 학교 전체 행사 활동(축제, 합창제, 체육대회 등)
- ⑦ 외부 강사 강연 ⑧ 상담 활동
- ⑨ 기타 _____

5.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할 학교 프로그램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친구 및 교사와 함께 하는 여행 ②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③ 다양한 방과후학교
- ④ 주기주도학습 프로그램 ⑤ 독서 관련 프로그램 ⑥ 강연회
- ⑦ 기타 _____

6.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할 학생 생활 지도 방안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의 정기적인 문자 메시지 ② 학급별 단체 대화방 개설로 정보 공유 및 상담
- ③ 담임의 정기적인 전화 또는 문자 상담 ④ 지역 내 위험 지역 순찰 지도
- ⑤ 기타 _____

7. 2017학년도에 원하는 학사일정(안)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본교 학사운영 방식			
학년도	겨울방학	종업 또는 졸업식	봄방학
2014학년도	2014.12.24	2015.2.7.	2015.2.8.~2.28.
2015학년도	2016.1.8.~2016.2.29	2016.1.7.	없음
2016학년도	2016.12.31.~2017.2.28.	2016.12.30.	없음

- ① 2014학년도 방식 ② 2015학년도 방식 ③ 2016학년도 방식
- ④기타 _____

8. 본교의 학사운영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미리별중학교

2015학년도 졸업 및 종업식 학사운영 만족도(교직원)

미리별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학년도 학사일정 운영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는 효율적인 학사일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6. 9.

2016.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현장정책연구회 ‘졸업까지 제대로’

※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아래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관리자 또는 부장교사 ② 담임교사 ③ 비담임교사 ④ 행정직 ⑤ 그외

2. 2015학년도 1월 졸업 및 종업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⑥ 기타 _____

3. 1월 졸업 및 종업식이 만족스러운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년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효과적이어서
② 학년말 학생 생활지도에 효과적이어서
③ 겨울방학 기간 활용으로 다양한 연수에 효과적이어서
④ 기숙사 운영에 효율적이어서
⑤ 기타 _____

4. 1월 졸업 및 종업식이 걱정스러운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년말 업무 처리 시간 부족
② 긴 방학 동안의 학습 공백
③ 긴 방학 동안의 학생 생활 지도 공백
④ 긴 방학 동안 학교 행정 공백
⑤ 기타 _____

5. 학년말 고사 실시 후 원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진로탐색 활동 ② 동아리 활동 ③ 예술(음악, 미술)활동 ④ 스포츠 활동
- ⑤ 작품 전시 활동 ⑥ 학교 전체 행사 활동(축제, 합창제, 체육대회 등)
- ⑦ 외부 강사 강연 ⑧ 상담 활동
- ⑨ 기타 _____

6. 겨울방학 기간에 원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친구 및 교사와 함께 하는 여행 ②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③ 다양한 방과후학교 개설
- ④ 주기주도학습 프로그램 ⑤ 독서 관련 프로그램 ⑥ 강연회
- ⑦ 기타 _____

7. 겨울방학 기간에 원하는 학생 생활 지도 방안을 1~2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의 정기적인 문자 메시지 ② 학급별 단체 대화방 개설로 정보 공유 및 상담
- ③ 담임의 정기적인 전화 또는 문자 상담 ④ 지역 내 위험 지역 순찰 지도
- ⑤ 기타 _____

8. 2017학년도에 원하는 졸업 및 종업식 일정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겨울방학 실시, 2월 개학 후 졸업 및 종업식, 봄방학(2014학년도 방식)
- ② 1월까지 연속하여 학사운영 후 졸업 및 종업식, 겨울방학 실시(2015, 2016학년도 방식)
- ③ 12월 말에 졸업 및 종업식, 1~2월 겨울방학 실시
- ④ 기타 _____

9. 졸업 및 종업식 일정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밀양중학교

2016학년도 겨울방학 계획 만족도(학부모)

※ 해당 항목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1.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 겨울방학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휴식과 놀이 ② 다양한 체험 ③ 학습 보충
④ 기타 _____

3. 학교에서 운영할 겨울방학 학습 및 생활지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⑤ 기타 _____

4. 2016학년도 본교의 겨울방학 학습 및 생활지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완이 필요하다 ④ 매우 보완이 필요하다
⑤ 기타 _____

6. 학생이 학교의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있다 ③ 없다 ④ 모르겠다
⑤ 기타 _____

7. 학교의 겨울방학 프로그램 중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 방과후학교, 핸드메이드교실, 캠프 ② 진로(또는 문화)체험
③ 독서활동(자기주도독서 또는 독서프로그램) ④ 봉사활동(학교당번활동)
⑤ 기타 _____

8-1. 겨울방학에 가족 또는 학생 개인 체험활동을 할 계획(횟수)가 있습니까?

- ① 10회 이상 ② 5~9회 ③ 1~4회 ④ 없다
⑤ 기타 _____

8-2. 겨울방학에 가족 또는 학생 개인 체험활동을 할 계획(일수)가 있습니까?

- ① 30일 이상 ② 10~29일 ③ 1~9일 ④ 없다
⑤ 기타 _____

2016.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중3, 고3 학생의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인쇄
2016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 선 준

기 획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안 태 환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 영 회

연구자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 김 성 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 이 경 주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류 영 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전 흥 표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641-825)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www.gerii.go.kr>
전 화: (055)269-0777
전 송: (055)269-0789

인 쇄

그라지에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http://ebook-lib.gerii.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
아이종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